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9월 15일(금)
(음력 7월 25일)
Пятница
15 сентября 2017 г.
№ 36(11675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4일(목)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제5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골봉환 추도 및 환송식이 거행되었다. (관련 기사 3면)

(이예식기자 촬영)

<고려인—과거, 현재, 미래> 국제 학술회의 개최

9월 15-17일 3일간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에서 <고려인—과거, 현재, 미래: 극동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80주년 기념>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된다. 학술회의는 전러시아 고려인협회,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극동지역 역사·고고학·문화인류연구소의 주최로, 연해주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재외동포재단과 최재형 기념 사업회의 후원과 한국의 동국대학교와 전북대학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발제에 따른 발표에는 러시아 각 지역과 한국, 오스트리아, 미국, 우즈베키스탄 등의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사할린을 대표해 이 포럼에 사할린한인연구로 잘 알려진 아나톨리 쿠진 교수와 진 올리아 역사학 준박사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 올리아 전문가는 이번 발표문을 장원창 전 사할린한국교육원장과 함께 준비했다고 한다.

대규모 학술회의 프로그램은 4 개의 세션과 원탁토론, 지역 탐방으로 구성되었다.

<예지나야 러시아>당, 주두마 의원 선거에서 44,64% 투표율 얻어

지난 10일 사할린에서 제7기 주두마 의원 선거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마 보궐 선거, 그리고 4곳 지방 자치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다.

11일(월) 사할린주 선거위원회에서 소집된 기자회견에서 선거 예비결과가 밝혀졌다.

제7기 사할린주두마 의원 선거에는 9만 9165명이 투표하여 총투표율은 26,04%로 밝혀졌다. 빅토리아 체르카소와 사할린주 선거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선거는 별 문제와 스캔들 없이 잘 진행되었으며 주선거위원회는 9건의 항의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효 투표지는 4488건, 유효 투표지는 94584건에 해당했다.

주두마 의원으로는 28명(14명은 당 소속, 14명은 선거구 당 1석)이 활동하게 된다.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예지나야 러시아(통합당)>당 사할린 지부 - 44,64% (44221명)

<러시아연방 공산당> 사할린 지부 - 16,5% (16345명)

자유민주당 사할린지역 지부 - 13,02% (12902명)

<러시아 여성을 위한>국민의 당 - 4,82% (4772명)

스프라웨틀리와야 러시아 당 사할린지역 지부 - 4,54% (4501명)

러시아 коммунист 공산당 - 4,12% (4082명)

<러시아 통합 민주당 <야블로코> 사할린 지부 - 1,59% (1576명)

<러시아 애국자>당 사할린지역 지부 - 1,25% (1236명)

전러시아 정의당 <로지나> - 1,17% (1161명)

사회정의 공산당 사할린지부-3,82%(3788명)

이렇게 하여 비례 대표 투표로 5% 이상의 투표율을 넘긴 3정당(<예지나야 러시아> 9명, 러시아연방 공산당 3명, 자유민주당 2

명)의 대표(이름 공식 발표는 나중에 함)가 주두마에 통과된다.

1석 선거구 투표 결과:

제1선거구 - 최 유리 (36,49%, <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

제2선거구 - 안드레이 하포츠킨 (50,72%, <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

제3선거구 - 알렉산드르 샤리폴린 (41,42%, <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

제4선거구 - 스웨틀라나 이와노와 (37,69, 러시아연방 공산당 소속)

제5선거구 - 세르게이 본다레브 (36,09%, <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

제6선거구 - 이고리 오시펜코(35,94%, <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

제7선거구-드미트리 파쇼브 (42,13%, 무소속)

제8선거구 - 예브게니 로틴 (48,17%, <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

제9선거구 - 세르게이 포돌란 (43,57%, 무소속)

제10선거구 - 나탈리아 코르슈노와 (47,02%, <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

제11선거구 - 빅토리아 크리워세예와 (44,14%, <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

제12선거구 - 알렉산드르 볼로트니코브 (57,04%, <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

제13선거구 - 올레그 사이토브 (36,12%, 무소속)

제14선거구 - 블라지미르 로주메이코 (28,72%, <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

14일(목) 오후 주선거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결과가 승인되었다. 비례 대표 투표로 선정된 의원 최종 명단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제7기 주두마 의원 최종 명단은 9월 20일 밝혀질 것으로 알려졌다.

주두마 의장으로는 안드레이 하포츠킨 의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본사기자)

유골봉환 간담회, 한국 정부의 표창장과 감사패 수여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골봉환 추도와 환송식을 앞두고 지난 13일(수) <라다>호텔 연회장에서 한국 행정안전부는 유족대표, 공식인사와 사할린 한인사회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골봉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 공로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내빈 인사말씀에 이어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구만설 단장은 2013년부터 추진한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유골봉환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박 블라지미르 네웰스크 시장·안연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노인회장·강복숙 우글레고르스크한인회 회장에게 행정안전부의 표창장을, 한 드미트리 사할린주경제개발부 아시아1국장·노소브 블라지미르 러시아외무성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표·홍정환 아시아나항공 사할린지점장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표창장은 이진선 사할린주한인회 사무국장, 고영순 마카로브 한인회 회장, 정윤식 고르노사위드스크 한인회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인사말씀을 한 구만설 단장, 한 드미트리 사할린주 경제개발부 아시아1국장, 노소브 러시아 외무성 유즈노사할린스크대표, 한국 외교부 동북아 1과 이기성 과장,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회 회장, 김홍지 주노인회 회장,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윤흥순 유족 대표는 유골봉환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러 정부의 협력 아래 이 사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했다.

(본사기자)

새고려신문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새고려신문을 구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지난 호에 게재된 청원서에 추가 내용이 빠져 있어서 최종 번역문을 다시 게재함.

청원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우리 사할린 한인들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말씀 올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한 번도 대한민국의 대선이 사할린 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미해결 문제로 '사할린'을 언급하 실 때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사할린 한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루어 줄 수 있는 국가원수가 나타났 구나! 모든 사할린 한인이 대통령 님의 '사할린' 한 단어에 가슴 깊 이 감동 받았습니 다.

1938년 5월,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칙령 제316호: 조선, 대만 및 사할린에 대한 시행 건)에 따라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치하의 남사할린(북위 50도 이하)으로 4만 3천여 명의 조선의 젊은이들이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군수시설과 탄광, 벌목장, 도로와 철도 등의 건설 현장에서 그들은 피눈물나는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할린 한인사에는 또 하나의 비극이 있습니다. 1944년 8월 11일 일제의 각의결정에 의해 3천여 명 이상의 광부들이 일본 본토로 전환배치 된 것입니다. 부모와 의 이산도 모자라, 처자식과 생이 별 해야 했던 그들의 생애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1946년에서 1949까지 <사할린일본인 송환에 관한> 소-일간 합의(1946.3.16)에 따라 29만 2천여 명의 일본인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조선인들은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버려졌습니다.

한-소 수교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사할린 한인들은 부모와 자식, 친인척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커녕, 소식조차 주고 받을 수 없었습니다.

1992년부터 시행된 '영주귀국 사업'으로 그나마 4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귀환했고, 현재 한국 내 25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주귀국사업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대는 또 다시 자녀와 가족들을 사할린에 남겨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잔인한 귀환정책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할린 한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압니다. 우리의 지난 아픈 역사를 보듬어 주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반쪽자리 조치에 불과하며, 국제적 차원에서 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할린에 잔류한 570여 명의 1세대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의 해결은 시급합니다. 사할린 한인 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비극의 한 장입니다.

현재 사할린에는 그 역사의 피해자와 그들의 자손이 2만 6천여 명 살고 있습니다. 사할린 인구의 두 번째를 차지하는 민족이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정착했습니다.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이들도 많아 한인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이 같은 활약 덕분에 대한민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도 형성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 사할린 한인 1세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 손자, 증손자를 대표하여 청합니다.

희망과 믿음을 품고,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의 정의와 인도주의가 우리의 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제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정의 회복과 고령의 1세들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12년째 국회에 표류 중인 '사할린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가족과 함께 영주귀국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다음의 문제들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 일본 정부에 의한 사할린 잔류 한인 1세 도덕적·물질적 배상금 지급
- 대한민국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위로금 지급 대상 규정 완화(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음)
- 일제강점기 강제 적립된 우편저금과 간이보험금 등의 회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협상 및 수령
- 일본 정부에 의한 이중징용 광부 명단 공개(1944년 8월 11일 일본 국무총리령)
- 재 사할린 한인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 전통의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또한,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고 후세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사할린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대통령님 임기 내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고 또 희망합니다.

우리는 경제적·학문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한 모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롭습니다. 평화로운 남북통일은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할린 한인들은 누구보다도 이산의 아픔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국인 대한민국이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만 같아 매우 벅차고 기쁩니다. 우리 역시, 기꺼이 우리 민족과 모국의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성공, 국민으로부터의 사랑과 인정을 기원하며...

사할린주한인회장 박순옥 드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135주년 행사에 안산시와 광주시 대표단 초대받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135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받아 사할린을 방문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자매도시인 안산시 대표단(단장 이진수 부시장)은 8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과의 만남에서 경제, 교육, 관광과 스포츠 분야의 교류 확대를 논의하고 <세월호 참사>사태로 성사되지 못한 교환학생프로그램을 재구축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주한인회(회장 박순옥)와 새고려신문사(사장 배위토리아)를 전통적으로 방문한 안산시 대표단은 한인문화센터 앞 소공원 조성에 협력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표명했다. 신문사 재정적 어려움을 잘 아는 안산시는 본사에 지원금을 전달했다.

* * *

지난 7-9일 2박3일 일정으로 경기도 광주시 대표단(단장 조억동 시장)이 유즈노사할린스크시를 방문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135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받은 대표단은 8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과 만나 양도시 간 농업, 관광 분야의 상호 경제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대표단은 이날 사할린 한인문화센터를 방문하고 박순옥 회장과 만나 경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논의 후 본사 사무실을 찾아 새고려신문사의 연혁과 현황을 파악하기도 하고 사할린동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정정합니다

새고려신문사는 사할린한국한인회에서 2017년 7월 28일자 새고려신문 2면에 게재된 <김해시 지방지치의원단, 사할린한인 사회계 관계자와의 공식 만남 무산>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3가지를 정정해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편집부는 2가지 내용만 정정하기로 했다.

기사 중에는 "현재 러시아 사할린에서 무국적 영주권자(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лиц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로 체류하는 현덕수 씨가 한국한인회 회장으로서 권리가 있는지란 의문도 생긴다. 더군다나 이 한인회 회원 대다수가 그의 회사 직원..."

사할린한국한인회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한인회 정관에 따른 정식 회원 모집과 선출로 회장이 선출되었으며 재외동포법(99년 12월 31일 제정) 제2조 1호에 의거해서 자격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
2. 현재 30명 내외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언급한 회사 직원은 소수임.

(본사 편집부)

이 모 저 모

체 호 브 센 터, <안 데 르 센 동 화> 상 연

9월 20일 체호브센터의 검정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 상연이 조성된다. 연극의 제목은 단연코 <안데르센의 동화>다. 극장 무대에서는 덴마크의 위대한 이야기꾼의 작품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상연할 계획이다. 이에 알렉산드르 아게예브 감독은 <어린이방>, <늑대사람>과 <양조> 세 가지 이야기를 선정했다. 줄거리에 따르면 부모는 극장에 가서 어린 아나를 그의 대부와 함께 두고 떠난다. 대부는 아나가 슬퍼하지 않도록 어린이 방에서 직접 자신만의 극장을 펼치면서 얘기가 시작된다.

"안데르센의 동화는 아주 재미있으며 아이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체호브센터의 총감독이자 이 연극을 연출하는 알렉산드르 아게예브는 말한다. "저에게는 이처럼 상상력이 기적을 만드는 나이의 아들들이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지팡이는 칼이나 또는 총으로, 식탁보는 비밀 피난처로 바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제가 연출한 이 연극에도 많은 것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체호브센터에서 <고전극장> 기획의 일환으로 제7학교 3학년생들을 위한 안데르센의 동화 강독회가 있었다. 이 강독자들은 앞으로 이 연극의 역을 맡게 될 예술가들로서 사할린주 문화부 명예일꾼 안드레이 쿠진과 젊은 연극배우 이리나 제니호와

와 일리야 로마노브이다. 로마노브는 덴마크의 이야기꾼 역할을 맡는다. 총미술감독으로는 체호브센터의 극장 화가인 키릴 피스쿠노브가 맡아 재미있는 동화적 장식과 화려한 의상을 준비했다고 체호브센터는 전했다.

Чехов-центр покажет "Сказки Андерсена"

20 сентября в черном зале Чехов-центра состоится премьера спектакля для детей. Название постановки — "Сказки Андерсена" — говорит само за себя: на сцене театра покажут историю, поставленную по мотивам произведений великого датского сказочника. Режиссер Александр Агеев остановил свой выбор на трех историях: "В детской", "Снеговик" и "Свечи". По сюжету, родители ушли в театр и оставили маленькую Аню дома с ее крестным, а чтобы девочка не грустила, он решает устроить свой театр прямо в детской.

— Сказки Андерсена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 они побуждают ребенка смело фантазировать, — говорит режиссер-постановщик спектакля, главный режиссер Чехов-центра Александр Агеев. — У меня два сына, и они сейчас в таком возрасте, когда воображение творит чудеса: поднятая с земли палка тут же становится саблей или ружьем, а покрывало, натянутое поверх стола, — тайным убежищем. Поэтому и в моем спектакле многое построено именно на этом.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в Чехов-центре прошла читка сказок Андерсена для третьеклассников школы №7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Классный театр". Провели ее артисты, которые исполняют роли в будущем спектакле: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Кузин и молодые актеры Ирина Женихова и Илья Романов. Последний, кстати, предстанет перед юными зри-

телями в роли самого датского сказочника. Художником-постановщиком "Сказок Андерсена" выступил главный художник театра Кирилл Пискунов, он придумал интересную сказочную декорацию и красочные костюмы, сообщает Чехов-центр.

사할린주민들에게 독감 예방 접종

사할린주민들에게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권장하여 지역 주민 20여만 명에게 접종할 예정이다. 그중 6만5천 명은 아동들이다. 전문가들은 백신접종으로 독감 발생 시 실질적으로 전염의 위험성을 현저히 감소시켜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2진료소에서는 2주간 약 4000명이 접종을 받았고 10월 중순까지 1만2천 명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본 진료소 제2내과 과장 나탈리아 로마노와가 통계를 전하면서 "백신으로 사용되는 <소위그리프>가 특별 면역기능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접종을 하면 9개월간 효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할린주는 이미 성인들을 위한 백신 6만7500 명분, 아동을 위한 백신 2만8천 5백 명분을 공급했다. 이는 계획량의 50% 정도로 나머지 백신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제조사로부터 도착할 예정이다.

"지역 예산으로는 <그리폴 플러스>백신 1만 명분을 구입했다. 6개월의 영아부터 18세까지와 임신부를 위한 이 백신은 모든 의료기관들에 배분했다."고 사할린주보건부 의료구호기관 전문가 나탈리야 디르다가 전했다.

(8면에 계속)

제5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골 봉환 주도 및 환송식

이승에서의 모든 고통과 슬픔, 원한은 끊어버리시고 그리시던 고국의 품에 안겨 평안히 쉬소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4일(목) 오전 11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제5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골 봉환 주도 및 환송식이 있었다. 이 행사는 현재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진행하고 있다. 이번엔 한국 정부는 사할린 한인 희생자 유골 12위를 봉환했다. 9월 9일부터

린과 한국 정부 관계자, 러시아·한국·일본 외교관, 사할린 한인사회계 대표, 일반인, 한국어 교사들과 학생 등 80여 명이 모여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묵념으로 사할린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영령을 추모했다.

행사는 포로나이스크에 살았던 희생

했습니다. 이곳 사할린에서도, 많은 한인들이 영하의 날씨와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오늘, 영령이나마 그분들과 마주하고 보니, 그들의 뼈에 사무쳤을 한과 슬픔이 제게로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가슴이 저립니다."라고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정부는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하여, 사할린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묘지를 조사하고, 유족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해방 후 처음으로 코르사코프에 잠들어 계

린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체, 사할린 한인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런 뜻 깊은 행사는 한국의 모든 유족들이 잃어버린 가족과 영혼으로나마 모두 재회하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박순옥 회장의 말에는 아마도 이날 행사 참가자 모두가 공감했을 것이라 본다.

유골봉환 사업은 한국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지만 이곳 사할린 현지에서는 이 사업을 사할린주한인회 김홍지 회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한편 작년까지만 해도 유골을 주로 한국 국민인 유가족이 봉환했는데 2016년에 처음으로 영주귀국한 사할린한인들이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부모님의 유골을 모국으로 모시기 되었다. 올해는 12위 중 거의 3분의 1은 사할린동포들이 봉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참석자들이 헌화를 한 후 유족들은 유골을 모시고 귀향길에 나섰다. 다음날 9월 15일에는 천안에 있는 '국립망향의 동산'에서 추도·안치식을 거행한 후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골 12위는 남골당에 안치하게 된다.

유족 중에는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거주하며 얼마 전에 한국국적을 받은 김복곤 전 사할린 정의복원재단 지도자도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시기 위해 사할린을 찾았다.

내년에는 사할린강제징용 8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강제동원과 관련해 많은 사할린 한인들의 마음의 상처는 오랫동안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사할린을 찾은 행정안전부·유족 대표단(35명)은 그룹으로 나뉘어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프, 홈스크, 고르노사위드스크, 셰부니노, 마카로브, 포로나이스크, 우글레고르스크 공동묘지들에서 강제동원 사할린 한인 1세들의 유골을 발굴하고 화장한 후 합동추모제가 열렸다.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일환으로 가졌던 동포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할린 한인 문제와 관련해서 유골봉환을 계속 할 거라고 표명했다.

한인문화센터 강당에는 유족들, 사할

자 윤병철 씨의 동생 윤흥순 (78세)씨의 추모사로 이어졌다. 모든 유족들을 대표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환과 비탄의 내용이 담긴 글(본문 7면에 게재)을 낭독하여 모두 눈시울을 붉히고 형님을 뒤늦게 모시기 된 윤흥순 유족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몇 분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의 추모사를 대독한 한국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업무 지원단 구만섭 단장은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잃고, 해외 이곳저곳으로 끌려가 가혹한 노동환경에 처해야만

신 고 유흥준 님의 유골봉환을 시작으로 2014년 18위, 2015년 13위, 2016년 11위에 이어 금년에 열두 분의 유골을 고국으로 모셔가게 되었습니다."라고 구 단장은 계속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날 추도사를 한 드미트리 사할린주 경제개발부 아시아1국장, 블라지미르 노소브 러시아 외무성 유즈노사할린스크대표,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황명희 소장,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은 유골봉환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협력하는 러시아-한국, 사할

주한인회 소식

미니축구시합에서 빅코브 팀 1등

지난 10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사할린주한인회의 주최로 미니축구경기가 열렸다. 여기에 포로나이스크, 홈스크, 빅코브, 돌린스크, 코르사코프,

팀들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하여 관람하는 응원자들 또한 바빠졌다.

경기결과:

1위-빅코브 한인회 팀 - 상금 3만 루블리

2 위 - 코르사코프 한인회 팀 - 상금 2만 루블리

3 위 - 돌린스크 한인회 팀 - 상금 1만 루블리.

시상식은 이날 한인문화센터에서 열린 환영만찬의 자리에서 진행되었고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축구팀들을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이 격려하기도 했다. 수상 팀의 기쁨을 지방한인회 회장들과 함께 나누었다.

(배순신기자)
(사진: 주한인회 제공)



네웰스크, 아니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축구팀들이 참가해 승부를 겨루었다.

인하대·국립국어원, 사할린에서 한국어 예비 교원 파견 프로그램 진행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김주환)에서 9월 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인하대와 국립국어원에서 선발한 한국어 예비 교원 및 경력 교원들이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졸업을 앞둔 한국의 한국어교육 전공자들에게 사할린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교육경험을 축적하도록 함으로써 취업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사할린의 한글학교 소속 교원들에게는 파견 교원의 다양한 강의를 참관하며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워크숍 등을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사할린 실습담당자인 최권진 인하대 교수가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하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대학생 6명과 대학원생 2명, 경력교원 3명과 행정요원 1명으로 총 12명을 파견해 사할린 한



예비 교원이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한국교육원 학습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국교육원 및 한글학교에서 수업 참관 및 모의 수업을 두 달 동안 진행한다. 파견된 교원들은 사할린의 문화와 한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특강 및 러시아 수업을 청강하고, 조별로 한인들의 삶과 관련된 주제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파견된 예비교원과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교육원 학습자를 1:1로 연결하여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멘티로 참

가하는 학습자들은 파견 교원과의 개별 학습을 통해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권도, 탈춤, 장구 등의 한국 문화도 경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포자르스코예에 위치한 '한인 피살자 27인 추념비' 주변을 정리하는 봉사활동과 사할린동포 1세대를 위로하는 행사도 준비한다고 한다고 인하대 측에서 밝혔다.

(본사기자)
(사진: 인하대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То, что смогли сохранить нашу националь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нашу культуру и наш язык вызывает большую гордость»

О встрече с президентом Мун Чжэ Ин

Как уже сообщалось, 7 сент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принявший участие в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дал в банкетном зале отеля Хёндэ обед, посвященный развитию друж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На обед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первые лиц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корейц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граждан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живающие в России, потомки героев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и и другие, более 150 человек.



В составе сахали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14 чел.) бы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1-го поколения, руководители областных и мест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прессы.

Чести встретить президента у входа удостоились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корейцев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Николай Ким и губернатор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ладимир Миклушевский.

В числе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за главным президентским столом было трое сахалинцев – дедушка Ким Юн Дек(93), бабушка Ким Ден Хи (84) 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Все остальные члены сахали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были за соседними столами с президентом.

В этот день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произнес большую приветственную речь, в которой говорилось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РК с Россией, о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ланах, о культурных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бменах, о том, что Корея гордится своими зарубежны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Упомянув о Сахалине, президент Мун сообщил, что государство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проект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остан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а также будет и впредь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поездки на родин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2-3 го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Возможность выступить на банкете от нашей делегации была предоставлена лишь дедушке Ким Юн Деку, который, несмотря на свой преклонный возраст,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на редкость отменную память, рассказывая о тяжелых работах на Сахалине в период Карафута. Его речь, пожалуй, была длиннее всех остальных выступающих. Дедушка Ким, сидевший рядом с президентской четой, попросил президента: «Помните, пожалуйста,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Помогите им».

После небольшого концерта от Уссурий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и выступления потомков героев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щност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езидент Мун, подводя итоги встречи, поделился: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за рубежом встречаешься 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у меня щемит в груди. И самое большое щемящее чувство испытываешь, наверное, тут, в России.

Сред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живущих в России есть те, кто прибыл сюда, устав от голода и нищеты, когда наша страна не смогла нормально прокормить свой народ, те, кто в годы японского милитаризма пытался избежать жестокой эксплуатации со стороны японщины, а кто-то, как Чхве Чже Хён, готовил базы за рубежом для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Есть также люди, подвергшиеся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о времена японского господства.

Из числа принудитель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на Сахалин, многие были повторно подвергнуты, уже двойной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обратно в Японию.

Есть и те, кто переселились в далекую Среднюю Азию. 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чем можно гордиться, это то, что, несмотря ни на какие бы то ни было лишения и страдания, они прожили жизнь достойно, стойко преодолевая все трудности, и вырастили своих славных потомков, получивших признание в российском обществе, - и этим можно гордиться.

А то, что они смогли сохранить нашу националь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нашу культуру и наш язык - вызывает еще большую гордость...

Постараюсь с должным уважением и заботой относиться к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Государство сделает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достойно вознаградить потомков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траны...»

Виктория Бя.

Останки корейцев возвращаются на Родину

14 сентябр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ась 5-я Церемония прощания с останкам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Макаров, Холмск, Корсаков, Поронайск, Углегорск, Горнозаводск, Шебунинно – 12 остан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 этих мест были возвращены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Для участия в Церемонии прощания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ехало около 20-т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Очень печальное и скорбное зрелище прощания не дает забыть о трагедии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Проектом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я занимае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ему содействуют региональные и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ые корей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где ключевая роль принадлежит председателю областного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Ким Хон Ди.

Виктория Б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Ансан планируют наладить школьные обмены

Делегации двух город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 Ансан и Кванджу — посетили администрацию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ости из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поздравили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со 135-летием и обсудили перспективы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культуры и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Мэр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облагодарил гостей за то, что они наш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быть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в дни празднования его 135-летия.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вице-мэр Ансана Ли Джин Су поздравил всех жителей столиц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 Днем города и отметил, чт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это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звивающийся город с большим потенциалом.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дальнейш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бразования, туризма и спорта. Кроме того, было внесено предложение наладить программу поездок по обмену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между Ансаном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Она была разработана, но после катастрофы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аромом "Севоль" в 2014 году, реализация программы была вре-

менн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Участники 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за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предложением,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данный вопрос будет детально проработан.

Также на встреч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Она предложила созда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лумбу, либо высадить аллею, посвященную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е. Эту идею поддерж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оих городов, тем более, чт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Ансан отметят 15-летие побратимских связей. Кстати, Ансан считается самым сахалинским городом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сегодня в нем проживают свыше 600 бывших островитян, которы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обосновались на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по программе репатриации.

А мэр Кванджу Чо Ок Тонг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делегация пришла обсуд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перспективу, например, организовать бизнес-миссию и наладить тес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таких сферах, как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и туриз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поможет Сахалину развивать аэропортовое хозяйство и создать учебный центр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пилотов

Соглашение об этом заключено 7 сентября в рамках III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проходившего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Документ подписали губернатор области Олег Кожемяко и специально прибывший для этого в столицу Приморья глава корпор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Иль-Ёнг Джонг.

Насыщенный передов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корейский авиаузел сегодня является мировым лидером по уровню сервис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Он занимает ведущие места по объемам перевозок и грузообороту. Количество обслуживаемых пассажиров каждые пять лет здесь увеличивается на 10 процентов. А в этом году – с открытием второго терминала – показатель и вовсе станет рекордным, достигнув 72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Важные конкурентн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воздушных ворот – комфорт и скорость. Вся процедура – от регистрации пассажира до его посадки на рейс в «Инчхоне» занимает всего около 15 минут.

Мы выражаем огромный интерес 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проживает многочисленна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и готовы предоставить региону свои лучшие наработки, ноу-хау для развития здесь аэропортов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применения новейших технологий, - сказал на встрече с Олегом Кожемяко, которая предваряла подписание соглашения, Иль-Ёнг Джонг. – В частности, готовы оказывать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ую по-



мощь на всех этапах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го аэровокз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торый по расчетам будет введен в работу уже в 2019 году. А впоследствии – и обучать сахалинских сотрудников эффективно управлять терминалом. Это позволит неуклонно увеличивать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и повышать уровень сервиса в аэропорту, - завершил он свою мысль.

Несомненно, такое партнерство даст мощный толчок к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всего аэропортов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а. Наша задача – сделать островные аэропорты, прежде всего, удобными для пассажиров, применив здесь лучшие мировые практики и стандарты сервис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региона.

Еще один важный пункт соглашения связан с созданием на Сахалине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центр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готовить пилотов и сотрудников для местной и региональной авиац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 От-

крыть его планируют на базе аэродрома «Пушистый»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Инициативу уже поддержала Росавиация – с ведомством на форуме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заключили отдельное соглашение. Суть идеи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бы организовать на острове стажировку будущих пилотов – студентов-старшекурсников и выпускников средних и высших летны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В России пока нет таких учебных центров, поэтому не только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но и для страны в целом – это шаг в будуще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сегмента. Для учреждения планируется закупить современные тренажеры – точные копии кабин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полностью имитирующие условия полета. Обучать пилотов будем и на самолетах,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компания приобретает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Например, на небольших воздушных судах, которые вскоре начнут выполнять регулярные рейсы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Шикотан и Парамушир. В последующем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ошедших в центре подготовку,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на работу, - 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Константин Сухоребрик, также принявший участие в подписании соглашения. –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рядом с новым учебным заведением потребуются построить и гостиницу для ребят, - уточнил он.

Готовы участвовать в совместной реализац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екта и зарубежные партнер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заявили о том, что предоставят новейшие программы для обучения пилотов.

(Пресс-служб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ужесточил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11 сентября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единогласно принял резолюцию №2375,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ую ужесточение санкций проти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ответ на шестое по счёту ядерное испытание. Её проект подготовили США. Резолюци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запрет на закупк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текстиля. Запрещаются поставк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газовых конденсатов, вводятся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родажу Пхеньяну продуктов нефтепереработки. В период с 1 октября по 31 дека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поставки могут составить максимум 500 тыс. баррелей, в течение 2018 года и последующих лет - 2 млн баррелей.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оставки сырой нефти н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но продажи углеводородного сырья в последующие годы не должны быть больше поставок за последние 12 месяцев. Первоначальный проект резолюции был существенно переработан: из него исчезли полный запрет на поставк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углеводородов,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нае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санкций против лидер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ТПК. В нём содержится призыв к мирному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бострение которой чревато опасными последствиями для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По сообщению американской стороны, санкции, действующие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ключая введённые ранее, позволят лишить Пхеньян более чем 90% доходов от экспорта сырья и товаров.

Объявлены меры по переводу работников образования в штат

46 тыс. школьны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аботающих по контракту, были исключены из списка време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быть переведены в штат. Около тысячи педагогов в дошкольных воспит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а также 12 тыс. сотрудников бухгалтер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школ будут переведены на бессрочные трудовые контракты. Так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озвучено 11 сентяб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Оно было принято на основе результатов анализа комиссии по вопросу перевода в штат време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школ и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Решение по преподавателям было принято в целях соблюд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поскольку для зачисления в штат преподаватель должен сдать квалификационный экзамен. Вместе с тем, было рекомендовано подготовить меры по улучшению условий работы таки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чтобы в этом вопросе между ними и штатными работниками не возникало неоправданной дискриминации. В целях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време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школах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мерено постепенно увеличивать штат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ого состава школ.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школах по срочному контракту работают 32.734 преподавателя. Если учитывать частные школы, то общи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ет 46 тыс. человек.

Корея может выбыть из десятка крупнейших экономик мира

К 2050 году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будет вытеснена из списка 10-ти крупнейших экономик мира из-за сокращения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Такой прогноз сделал ведущий специалист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компании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Симон Баптист (Simon Baptist). 11 сентября он выступил с лекцией,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Институтом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 лекции на тему «Прогнозы роста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роль технологий» он заявил, что к 2050 году список 10 крупнейших экономик покинут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талия и Канада. По его словам,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мировой рейтинг возглавляют США и Китай. К указанному периоду к ним присоединится Индия,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звивающаяся сегодня. Кроме того, в десятку войдут Мексика и Индонезия. Между тем,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меющая рост экономики в 3,5–4%, к 2030 году столкнётся с уменьшением показателя до 2%, а затем и до 1%.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двигатель ро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заключался в росте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Однак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стране наблюдается обратный процесс. Для исключения вышеуказанного вариант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должна найти способ увеличить прирост рабочей силы. Он отметил, что за продолжающимся ростом американской экономики стоит увелич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женщин, участвующих в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а также восполнение потребностей в рабочих руках за счет иммигрантов. Он указал,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должна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трудовой занятости женщин и принимать эмигрантов, а также повысить пенсионный возраст и привлечь к труду инвалидов. Он указал, что воссоединение Кореи даст новый толчок к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ки.

(RKI)

«К выселению приступить немедленно...» История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чало в № 38)

«Часто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корейца, едущего верхом на корове...»

Земли Приморья в ту эпоху стали спасением для многих тысяч корейцев — и до открытия пароходного сообщен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 европейской частью России количество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Кореи здесь даже превышало численность рус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о официальным данным приамурского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а, на 1882 год в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жило 8 358 русских и 10 137 корейцев.

К тому времени на юге Приморья существовало уже два десятка больших корейских селений. Вот как их описывал очевидец, чиновник российского МИДа Владимир Граве: «Всюду корейские фанзы, всюду встречаются корейцы в сво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одеждах: белые куртки, очень длинные, одеты поверх белой же рубахи, громадные белые панталоны, очень широкие и завязанные внизу. На голове косы, к которым припиливаются небольшие шапки в форме цилиндров с прямыми полями; цилиндр помещается не на голове, а на причёске.

Женщины тоже в белых широких платьях или в ярко-зеленых юбках поверх широких длинных штанов; грудь обнажена, головы их не покрыты, и на них они носят крупные тяжести или кувшины с водой. От привычки привязывать к спине грудных детей они держатся очень прямо и осторожно выступают при ходьбе... По дороге попадаются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рейские двухколесные арбы, запряженные иногда лошадьми, но чаще всего волами и коровами, которые держатся здесь не для доения, а для работы. Часто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корейца, едущего верхом на корове...».

Появлявшиеся в то время в Приморье и Приамурье мигранты из Японии и Китая жили и работали в основном в городах, занимаясь различными ремёслами и промыслами. Корейцы же, наоборот, большей частью проживали в новых сёлах, основанных посреди тайги Уссурийского края — их уделом был нелёгкий крестьянский труд.

Однако к началу XX века количество заселявших регион корейцев уже стало беспокоить местные российские власти. Первые опасения прозвучали ещё в 1893 году, когда глава Приамурского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а Андрей Корф собрал в Хабаровске съезд «сведущих люде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чиновники, промышленники и купцы тогда высказали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по поводу роста числ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их мигрантов: «Поселившиеся в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 корейцы, хотя и приносили ему в начале пользу как производители хлеба, то теперь, с увеличением здесь рус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надобность в них уменьшается из года в год, к тому же способ обработки ими почвы хищнический, так как они выпаживают почву до того, что на ней перестает родиться даже трава...»

Хотя к началу XX века, благодаря пароходному сообщению и Транссибир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русское население Приморья и Приамурья значительно выросло, но рост числа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Кореи тоже оставался внушительным. С 1882 по 1899 годы количество корейцев, живущих на российских земля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ыросло в три раза. В реальности их стало даже больше, местные власти смогли посчитать отнюдь не всех мигрантов. Почти половина сёл, окружавших тогда Владивосток, были корейскими.

«Объяпонить Корею и обкоренть Южно-Уссурийский край...»

Новый толчок переселению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дала неудачная для нашей страны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С 1905 года Корея попала под власть Японии, что вызвало массовый поток 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в русское Приморье. Сюда же отступили воевавшие против японцев корейские партизаны — российские власти их негласно поддерживали, но в итоге заселённые корейцами районы к югу от Владивостока контролировались не рус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а вооружён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старейшинами и атаманами.

Все попытки наладить учёт такого количества мигрантов провалились. Как писал в 1908 году отвечавший за охрану границы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го края с Кореей действительный статский советник Евгений

Смирнов: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откочевали в другие части края, продав свои имена выходцам из-за границы, которые и были записаны в сельские и волостные списки в качестве русских подданных... Так как дело это очень запутанное и сложное, то едва ли может быть решено высшей властью в крае...»

Если японцы на наше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елились только в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а китайцы были рассеяны небольшими группками по всему Приморью, то корейцы компактно заселяли целые сельские районы на границе с Корейским полуостровом. Наличие рядом множества «выходцев из-за границы» уже беспокоило и рус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власти. Первые конфликтовали с корейскими сёлами из-за земельных угодий, а вторые опасались политических последствий. На фоне масс неучтённых мигрантов и недавнего поражения от стремительно набравшей силы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такие опасения не казались напрасными.

Первым в отечественной истории, кто предложил выселить корейцев из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России, стал Приамурский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 Павел Унтербергер. В 1908 году он докладывал в Петербург: «После войны 1904–1905 гг., когда японцы сделались хозяевами в Корее, переселение к нам корейцев ещё более усилилось... Огромная опасность этого явления очевидна. Захват значительных площадей корейцами, выселение которых в будущем может встретить всевозможные препятствия, равносильно ослаблению нашего положения на берегах Тихого океана. Рассчитывать, что корейцы, даже перешедшие в наше подданство и принявшие православие, будут ассимилироваться с русским населением, нет никакого основания, так как опыт показал, что проживающие в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 уже 40 с лишним лет корейцы сохранили свою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в полной мере и остаются во всех отношениях чуждым нам народом. Нельзя также надеяться на лояльность этого элемента в случае войны с Японией или Китаем; напротив того, они тогда представят из себя чрезвычайно благоприятную почву для широ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рагами шпионства. Следует здесь заметить, что вселение к нам корейцев является весьма выгодным для японцев, которые поэтому и поощряют это движение. В Корее, например, образовалось утверждённое япон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бщество, имеющее целью содействовать переселению корейцев в Южно-Уссурийский край...»

На ассимиляцию корейцев, однако, у русских жител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то время существовал и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й взгляд. «По своему характеру и политическому положению корейцы единственные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желтой расы, имеющие склонность сделаться верными русскими подданными и любить Россию, как свою новую родину», — писал в 1911 году Спиридон Меркулов, юрисконсульт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а в будущем, в годы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один из видных деятелей «белого» Приморья.

Корейцы по сравнению с японцами или китайцам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тличались куда большей лояльностью к России и её культуре, — со временем это породит феномен «корё-сарам»,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Но даже положительна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выходцам из Кореи брошюра Спиридона Меркулова всё же называлась «Меры борьбы с наплывом желтой расы в Приамурье» — наличие на наши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раницах многомиллионных масс иноплемеников пугала даже тех, кто не был заражён расизмом и шовинизмом.

При этом власти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в те год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активно содействовали переселению корейцев на русские территории — это снижало социальное давление в оккупированной самураями Корее и создавало удобные рычаги влияния на ситуацию в Приморье. Именно в 1908 году в Японии учредили особое «Восточно-колониционное общество», для поощрения и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й миграции в Россию. Известный российский этнограф начала XX века Владимир Арсеньев так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 эту ситуацию: «Японцы стремятся объяпонить Корею и обкоренть Южно-Уссурийский край...»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историк Алексей Волынец,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Уникальный дл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центр реабилитации инвалидов открыт на Сахалине

Огромное здание, состоящее из 7 блоков, выросло на улице Больнично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бщая площадь всех его помещений – почти 12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использовался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оект – в нем учл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пожелани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по здоровью. Полученный результат их обрадовал – открытие центра сопровождалось аплодисментами и эмоциональными возгласами «браво».

Андрей Крамаренко – один из первых, кто попал в новостройку после разрезания традиционной красной ленты. Председа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инвалидов говорит, этого события на острове ждали еще с 80-х годов прошлого века, когда только возникла иде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центра для помощи инвалидам.

- Это очень большая радость! Многим сахалинцам теперь не придется выезжать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х процедур за пределы области. И еще считаю очень важным, что люди здесь будут не только оздоравливаться, но и общаться,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между собой, - сказал Андрей Крамаренко.

- Поистине грандиозный объект! О таком сооружении можно только мечтать! – согласился с предыдущим мнением Дмитрий Хлод, возглавляющий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нвалидов. Возможности центра он оценил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осетил его на инвалидной коляске: «Понравилось, что очень просторно, много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комнат лечебно-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фитотерапи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разгрузки. И, конечно, впечатлен оснащением учреждения».

Новостройка состоит из нескольких разноуровневых корпусов, соединенных между собой. Самый крупный имеет 4 этажа. Для максималь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к каждому ведут отдельные пандусы и специальные тротуарные дорожки, выложенные тактильной плиткой для слабовидящих. Внутри здания – 5 лифтов. А на прилегающей к нему территории оборудовали обширные прогулочные зоны с лавочками и цветниками.

По мнению самих инвалидов, в новом центре создали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способностей к бытов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Ежедневно он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 до 200 человек не только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о и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 для них организовали 25 стационарных мест – палаты оснащены специальными кроватями, в них есть холодильники и телевизоры.

Помощь здесь окажут жителям с нарушениями слуха, зрения,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в том числе тем, кто передвигается на колясках, а также имеющим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е заболевания.

Всего в учреждении – более сотни помещений. Это различные процедурные, залы лечебной физкультуры, подводного массажа, сауны и лечебных душей, кабинеты профильных врачей - стоматолога, отоларинголога, невропатолога и офтальмолога, водолечения и грязелечения, эрготерапии, иглорефлексотерапии, когнитив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УВЧ, свето- и электролечени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и групповой психотерапии. Есть ингаляторий, фито-бар, художественно-интеллектуальная комната, компьютерный класс,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 большая столовая на 100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с пищеблоком и прачечная.

В отдельном корпусе – бассейн с местом отдыха, тренажерной, кабинетом медсестры, раздевалками и душевыми. Его чаша имеет длину 16 метров и ширину 8. Безопасно перемещать в воду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по здоровью будет специальное электромеханическое устройство. Оно оснащено ложем, которое легко трансформируется в сиденье или лежак.

- Такие подъемники я когда-то видела в Японии и удивлялась. И вот сейчас зашла и увидела та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у нас. Считаю, что для Сахалина - это настоящий прорыв в деле помощи инвалидам, - высказала свое мнение Людмила Коваленко,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род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лепых.

Положительно она оценила и то, что вскоре в новостройку переедет областна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для слепых. Здесь оборудовали книгохранилище, кабинеты чтения книг специальных форматов и выпуска изданий для слепых.

Еще в одном из блоков разместили фабрику полного цикла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протезов - от снятия мерки до получения готовых изделий. Сахалинцам вскоре не придется заказывать их в други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ах или даже за границе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бучить местных мастеров работе на сложном оборудовании, решено пригласить на мастер-классы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за рубежа.

В целом перечень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и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нового центра внушительен. К примеру, здесь есть аппараты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атрофированных мышц, роботизированной терапии верхних и нижних конечностей, кардиотренажеры, стабилотаблица с обратной биологической связью, различные виды ортезов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от лучших миров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 Настоящая гордость учреждения – уникальный роботизированный комплекс «Локомат Про». Он позволяет буквально поставить человека на ноги – вновь научить ходить.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дин из немноги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где появилось такое слож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реабилитации, - сообщила Юлия Зими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

ской области. – Мы получили и специальные тренажеры для повышения моторики пальцев, разработки суставов, съемки позвоночника – на мониторе высвечиваются все имеющиеся проблемы со здоровьем в этой важной част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тела.

К концу этого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и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еще одного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 для детей-инвалидов. Ежедневно он с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на реабилитацию 75 ребят из все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сле масштабн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открыт стадион «Космос»

В излюбленном месте отдыха горожан сегодня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стадиона. Здесь собрались сотни людей - спортсмены 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футболисты, волейболисты и любители воркаута.

На обновленном стадионе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футболь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Зимой - работать каток. Для любителей легкой атлетики здесь предусмотрены беговые дорожки со специальным покрытием, а также асфальтированные - для катания на роликах. Оборудован и комплекс для сдачи нормативов ГТО, есть уличные тренажеры, волейбольная площадка, воркаут-городок, а также поле для игры в мини-футбол.

- Я и мои друзья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али, когда же наконец здесь можно будет погонять мяч. Теперь, думаю, мы будем проводить тут очень много времени. Все очень здорово, красиво и главное - безопасно, - поделил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двенадцатилетний футболист Максим Егоров.

- На новом стадионе смогут тренироваться любител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ы. Кроме того, «Космос»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для торжественных и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школьных выпускных и концертов, - добавил мэр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о периметру спортивного объекта установлено новое огражден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адиона предусмотрен сектор для разминки и зрительские трибуны, а также смонтирована система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Это только первый этап масштабн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В 2018-м году здесь подведут инженерные сети, заменят мачты освещения и расширят трибуны. Закрывать стадион для продолжения ремонта не планируется.

Вечернее шоу в честь 135-летнего юбиле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брало аншлаг на главной городской площади

Праздничная программа, которая привлекла внимание тысяч зрителей, шла здесь в течение трех часов. Началась она с выступлений местных эстрадно-джазовых коллективов. А после на сцене появилась известная певица Ани Лорак, концерт которой вызвал настоящую бурю эмоций у горожан.

Его финальной песней стала «Shady Lady», с которой артистка в 2008 выступала на конкурсе «Евровидение», заняв там второе место. По окончании концерта жители еще долго скандировали - «молодец». От имени всех собравшихся гостю за проникновенный и мощный живой вокал поблагодарили руководители области и города. Затем они выполнили почетную миссию. Победительнице виртуального квеста на знание истор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етро времени» Анне Скудновой был вручен сертификат на сумму 135 тысяч рублей.

Праздничную программу продолжила красочная новинка – на здание мэрии была выведена трехмерная проекция. В видеоролике собравшимся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основные вех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ути города. Последние кадры украсил виртуальный салют.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его появлением в небо с грохотом взмыли первые залпы настоящего фейерверка. Его сопровождали вспышки ярких сценических огней и музыкальный ряд, в котором современные ритмы сочетались с уже полюбожившимися местным жителям песням и о Сахалине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ретий фестиваль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состоялс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Одним из ярких и завершающих событий в афише торж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135-лет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тал общегородской праздник «Остров-рыба» на площади Ленина.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рало в воскресный солнечный день тысячи людей.

Марина Ивановна Белоусова пришла на праздник с пятилетней внучкой. Для малышей в этот день была подготовлена особая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с батутами и участием аниматоров.

- Такая замечательная погода, решила прогуляться и убить двух зайцев: с внучкой погулять и купить свежей рыбы к ужину. Ассортимент радует, но он такой разнообразный, что вот теперь хочется и копченой рыбы, и соленой. Даже не знаю, что и выбрать, - растерялась женщина.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ика на площади развернули ярмарочную торговлю более 12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Здесь было представлено больш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блюд из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которые мог попробовать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Гостям «Острова-рыбы» предлагались морские деликатесы и эксклюзивные салаты. Рыбный ассортимент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соленой, копченой, вяленой, замороженной и охлажденной рыбой, нарезками с различными заливками, соусами и приправами.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горожан привлекли огромный со- рокакилограммовый бутерброд с красной икрой и елка из

вяленой горбуши. Помимо разнообразия ассортимента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гостей «Острова-рыбы» ждала большая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Лучши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города радовали посетителей своим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В гигантский ресторан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на один день превратился главный курорт Сахалин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На острове прошел первый дл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Вкус на высоте». Его идея уникальна – авторские блюда сахалинской кухни от лучших шеф-поваров всем желающим предложили оценить на горнолыжном склоне с живописным видом 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ля гостей здесь также организовали кулинар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всевозможные конкурсы.

Основное действо развернулось на средней площадке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Старт фестивалю здесь был дан в обеденное время. Буквально в считанные минуты после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на площадке, где разместились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шатров с деликатесами – из местных дикоросов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уже был аншлаг. Самая многочисленная очередь выстроилась у павильона ресторан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 Мы представляем такие фирменные блюда, как хлебца мясная с копчеными моховиками и папоротником, а также профитроли с муссом из копченого терпуга. На второе – котлеты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креветки с моченой красникой и айоли из красники – это такой домашний майонез с перетертой ягодой, - рассказал о фирменном меню шеф-повар Богдан Зынов. – Все, что происходит – очень здорово. Сегодня на острове существует набор разрозненных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х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х культур – Европы и России, Кореи, Японии и Китая. И вот мы собираем их воедино, формируя сахалинскую кухню. Без громких слов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истор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Своими кулинарными шедеврами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удивили более 20 сахалинских ресторанов. Каждый представил эксклюзивное меню. Среди блюд, например, были сливочный мусс с копченой неркой в бочонке из свежего огурца, шашлык из кальмара, вареники с начинкой из кеты и палтуса, суфле «Птичье молоко» с желе из клоповки.

- Все кушанья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продаются с большой скидкой – 70 процентов, - сообщила Наталья Осипова -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и один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мероприятия. - Максимальная стоимость набора из двух блюд при этом не превышает 300 рублей. Мы специально создали такие условия, чтобы человек, имеющий в кармане 1 тысячу рублей, смог попробовать блюда как минимум из трех ресторанов, - пояснила она. – Перед собой ставим цель – пропагандировать,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не только интересно, но еще и вкусно, рассказывать об этом как местным жителям, так и туристам.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на фестивале блюда войдут в специальный каталог, который будем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на бортах самолетов и в крупных супермаркетах.

Меню заведений общепита дополнили колоритные народные блюда - от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Татар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на десерт предлагала чак-чак в форме большой рыбы. А на первое и второе - плов и уху по-сахалински, приготовленные в трех огромных казанах.

- На Востоке в плов добавляют нут, курагу, изюм, а здесь – на острове - мы реши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бруснику. Получается плов по-сахалински, - сообщил повар Ганид Нурматов. – Готовится такое блюдо около 3 часов. Ингредиенты - 16 килограммов говядины, 25 – моркови и 23 – риса. Этого хватит, чтобы накормить 270 человек.

Неподалеку от уголка татарской кухни расположился павильон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Здесь желающих угощали блюдами бортового питания будущего.

- Это креветка фрай, нерка, запеченная в зернистой горчице и салат чука. Десерт – сливочно-черничный из нашего местного агар-агара. А также палтус на пару с картофельными дольками и папоротник с говядиной, рисом и морскими водорослями, - отметила Елена Татурин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сервиса авиакомпании.

Представили на фестивале и оригинальные напитки. К примеру, кофе по-сахалински.

- Это черный фильтровой кофе с добавлением можжевельника, багульника и сироп островной красники. На послевкусии вы почувствуете свежесть и некую терпкость, глотки желательно делать не спеша, дать напитку полностью обволакивать полость рта, - пояснила Кристина Данченко, бариста компании «Эль кафе», которая угостила напитком двух молодых людей – Дмитрия и Александру.

- Просто великолепно, - отреагировали они. - Вообще у нас выдалось богатое лето на всевозможные фестивали, Сахалин развивается. И в плане туризма есть подвижки. Жить стало интереснее, - поделилась мнением девушка.

В послеобеденное время центр фестивальных событий переместился уже на верхнюю площадку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Меню здесь было несколько иным – в него включили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закусок, например, острые бургеры. Финалом же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нут рок-концерт и праздничная дискотека.

Власти обещают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бъединить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сразу два фестиваля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 «Остров-рыба» и «Вкус на высот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형님, 동생 흥순이가 왔습니다."

<유족대표 추도사>

형님, 동생 흥순이가 왔습니다.

74년 전인 1942년 겨울,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꽃다운 아내와 이별하고, 일제에 의해 이역만리, 사할린으로 끌려가신 후 모진 세월을 겪으시다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이하고도 귀국길이 막혀 끝내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타국에서 돌아가신 형님!

이제 형님을, 그렇게도 애타게 그리시던 고국으로 모셔가려고 동생 흥순이가 왔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하여 죄송합니다.

끌려가신 지 43년이 지난 1985년경, 박노학 씨를 통해 형님이 사할린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이면 바다마저 꽁꽁 얼어붙을 만큼 춥다는 사할린으로 끌려가 모진 삶을 살면서도 형님은 가족이 있는 고국을 그리며 여러 번 탈출을 감행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게 번번이 탈출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이어지는 가혹한 매질과 모진 고문... 차디찬 감옥에 여러 번 갇혔다는 얘기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온통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또 아팠습니다.

해방이 되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서둘러 세간을 정리하고, 잘 가라! 잘 있어라! 이웃들과 진한 송별회까지 마친 후 코르사코브 항구에서 배 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만, 출국허가 기간이 끝나는 바람에, 포로나이스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원통하고 기막힌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는지요!

형님! 고국 땅으로 모셔오기까지 너무도 긴 세월이 흘러 형님 끌려가실 때 두 살 찮먹이었던 동생 흥순이도 어느새 일흔 여덟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눈 감기 전에 형님의 유골이라도 고국에 모실 수 있게 되어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지나간 세월의 서러움이 교차합니다.

평생 형님을 그리워하다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에 마음 한 구석이 저러오기도 합니다.

형님! 이렇게 늦게 찾아 온 이 아우를 용서하시고, 부디 오늘 밤에는 꿈결이라도 나타나시어 나직한 목소리로 흥순아! 하고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겠습니까?

잠시 후면 형님께서 간절히 그리워하시던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는 평생의 한도, 원통함도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저의 형님과 여기 계신 모든 영령들이시여! 부디 이승에서의 모든 고통과 슬픔, 원한은 끊어 버리시고, 이제 당신들이 그토록 그리시던 고국의 품에 안겨 평안히, 평안히 쉬소서!

2017년 9월 14일

유족대표 윤 흥 순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4

시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31호의 계속)

4. Взрывные согласные не могут быть обозначены усиленными согласным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уществует пять усиленных согласных: ㅃ, ㅆ, ㅈ, ㅊ, ㅋ.

Глухие взрывные согласные [п], [т], [к] обозначаются литерами ㅍ, ㅌ, ㅋ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Звонкие взрывные согласные [б], [д], [г] обозначаются литерами ㅂ, ㄸ, ㄱ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Звуку [dz] соответствует литера ㅈ.

ㅈ (жем), ㅊ (джаз), ㅋ (джип).

Звуку [с] ([s]) соответствует литера ㅅ.

서비스 (сервис), 세일 (сейл), 서핑 (сёрфинг).

5. Этот принцип определяет запись заимствованных слов, ставших общепотребительными словами.

Способ транслитерации некоторых таких слов стал нормативным без учета вышеприведенных принципов транслитерации. Такие слова записываются в привычной форме, несмотря на расхождения с остальными принципами.

카메라 (camera), 피자 (pizza).

Звуковым сочетанием звука [ш] с гласными будут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сочетание букв: 샤, 새, 서, 쇼, 슈, 시.

잉글리시(English), 플래시 (flash), 타슈켄트 (Ташкент), 비슈케크 (Бишкек).

При транслитерации заимствованных слов не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сочетания 초, 자, 주, 저, 쇼, 차, 주, 처.

조지 (Jorge), а не 조지;

비전 (vision), а не 비전;

주스 (juice), а не 주스;

크리스천(christian), а не 크리스천.

문법 Грамматика

(1) -(기)에 따라(서)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римеры:

학파에 따라 등록금에 차이가 있다.

→ Оплата за обучение зависит от отделения вуза.

상황에 따라 해결책을 정하세요.

→ Действуйте п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임장에 따라 다릅니다.

→ Все зависит от позиции.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Это можно интерпретировать по-разному,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как вы думаете.

(2) -에 대해서, -에 대하여 "о(об)..." , "относительно..."

Примеры: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합니다.

→ Мы собираемся провести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ю о результатах встречи в верхах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Кореи.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Что вы думаете по поводу чрезмерной страсти корейцев к образованию?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 Вышел доклад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е нов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3) -에 따르면, -에 의하면 "по ...", "исходя из ...", "следуя ...",

Примеры: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8월 초까지 장마가 계속 된다고 합니다.

→ По прогнозам гидрометеоцентра до начала августа ожидаются проливные дожди.

언론에 의하면 러시아 대통령이 곧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합니다.

→ Как сообщает пресс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соверши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визит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설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 정부의 대외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роведенного опроса большинство населения поддерживает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проведенную действующ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ПРИГЛАШАЕМ

на международную концертную программу дружбы народов
в рамках 2-го фестиваля

САХАЛИНСКИЙ АРИРАН

В честь 5 летия включения в нематериальное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ЮНЕСКО.

В программе- концерт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коллективов Ариран г. Мунген, провинция Кенсанбукто;
г. Чунчен, провинция Канвондо: г. Сеул и г. Конджу, провинция Чунченнамдо, коллектив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з Китая бэнд Юн Ын Хва и Российского отдела объединения ХанКоре Ариран

17 09 2017 г 15ч-17ч

18 09 2017 г 17ч -19ч

ДК Родина г.Южно
-Саха линск

Дворец куль
туры г.Холмска

Организаторы: Объединение ХанКоре Ариран и Ассоциация унаследования Арир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г. Мунген и Чунчен, Ассоциации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Ариран
между РК и КНДР. Танцеваль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и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общества Ариран,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г.Холмска
Главный режиссер- Ким Че Вон и режиссер Ли Ин Ен Переводчик-Кон Но Вон

Организато ры: Управле ние культуры администра ции г.Южно -Сахлинска

동포사회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제123호 아리랑

제2회 사할린아리랑제

2017 09. 17 15시-17시

2017 09. 18 17시 -19시

유즈노사할린스크
로지나극장

홀스크 문화회관
공연장

1. 초청 아리랑단체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아리랑보존회'

2. 중심 아리랑단체
강원도 춘천시 '춘천의령아리랑보존회'

3. 해외동포연주단
중국 조산족 '붉은회백단'

4. 초청 아리랑명창
김은혜(안변아리랑보존회창), 남은혜(공주아리랑보존회창) 유명옥(서울아리랑보존회창)

5. 참여단체
한겨레아리랑연합회 러시아본부

예술감독 : 김재원 무대감독 : 이민영 통번역 : 공노원

주관: 사할린아리랑연합회 / 한국아리랑연수사업단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시청문화예술부 후원: 동해시청 / 문경시 / 춘천시 / 마곡정삼보고등학교 / 아리랑학회 /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협회 / 홀스크 한인협회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독감예방접종과 함께 전문가들은 폐렴의 합병증이 있을 때 도움이 될수 있는 폐렴구균 감염예방 접종을 권장한다. 사할린주민들 중 호흡기의 만성질환 및 심혈관 환자, 당뇨병 환자, 군 신병들과 2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는 예방접종을 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사할린주보건부 홍보실이 전했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вивают от гриппа

Сахалинцев призывают бесплатно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и от гриппа. Вакцинацией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охватить более 200 тысяч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Из них 65 тысяч — дети. По оценкам специалистов, это позволит существенно снизить риск превышения эпидпорога во время вспышки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гриппом.

— В поликлинике №2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 две недели привито около 4 тысяч человек, до середины октября планируем охватить 12 тысяч, — привела статистику заведующая 2-м терапевтиче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медучреждения Наталия Романова. — Используется вакцина "Совигрипп". Прививку делают сейчас, чтобы сформировался специфический иммунитет, он сохраняется 9 меся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поставлено 67,5 тысячи доз вакцины для взрослых, 28,5 тысячи доз для детей. Это около 50% от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объёма, оставшиеся партии препаратов доставят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риобретено 10 тысяч доз вакцины "Гриппол плюс". Она распределена во все медицин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для иммунизации дет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 возрасте от 6 месяцев до 18 лет и бе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 сообщила референт отдела организаци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Дырда.

Вместе с вакцинацией от гриппа специалисты рекомендуют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у от пневмококковой инфекции, она поможет избежать осложнений при пневмонии. Жители области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органов дыхания и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ой системы,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призывники, а также дети от 2 до 5 лет могут пройти эту иммунизацию в поликлиниках бесплатно,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здрава.

사할린 검도팀 전국무술경기에서 우승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아나파에서 열린 제10회 전 러시아 청소년무술대회가 개최되었다. 경기에는

선수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1개 무술 스포츠 종목에 메달은 700개가 수여된다.

대회는 러시아무술연맹이 주최하여 국내 무술 스포츠의 발전과 대중화를 꾀하고 무술과 격투술에 종사하는 선수들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데 목적을 두고 경기가 펼쳐졌다.

9월 10일에는 검도경기가 종료되어 여기에 참가한 사할린주 대표팀이 전국청년무술대회의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10-11세 소년 그룹에서 알렉세이 포드위긴이 1위 했고, 12-14세의 유소년 중에서 레온 클류예브가 우승했다. 15-18세 청소년 그룹에서는 사할린 검도 선수들이 메달을 휩쓸어 김만옥 -1위, 다니일 황 - 2위, 리태수 - 3위 하여 모두 시상대에 올랐고 같은 류의 종목에서 알렉세이 세웰로브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리하여 사할린 무술팀은 전 팀 총산 94점을 받아 승자로 등극했고 2위는 칼미키야공화국, 3위는 크라스노다르지역이 차지했다고 사할린주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кендоисты стали призер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С 3 по 18 сентября в Анапе проходят X открытые Всероссийские юношеские игры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В турнир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более 5000 спортсменов, будет разыграно 700 медалей в 21 виде спорта.

Соревнования организованы Российским союзом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и проводятся в целях развития и популяризации спорта в стране, повышения уровня подготовки спортсменов, занимающихся боевыми искусствами и спортивными единоборствами.

10 сентября завершились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кендо, где сборна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а обладательницей золотых медалей всероссийских юношеских игр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В копилке островной сборной 3 золотых, 1 серебряная и 3 бронзовых медали.

В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мальчиков 10-11 лет первенствовал Алексей Подвигин, у юношей 12-14 лет победу одержал Леон Ключев, среди старших юношей 15-18 лет весь пьедестал завоевали сахалинские кендоисты: Ким Ман Ок — первый, Даниил Хван — второй, Ри Те Су — третий, в этой же категории бронзовую медаль завоевал Алексей Шевелев.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анда стала безоговорочным победителем соревнований в обще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набрав 94 балла.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команда Республики Калмыкии. Третье место у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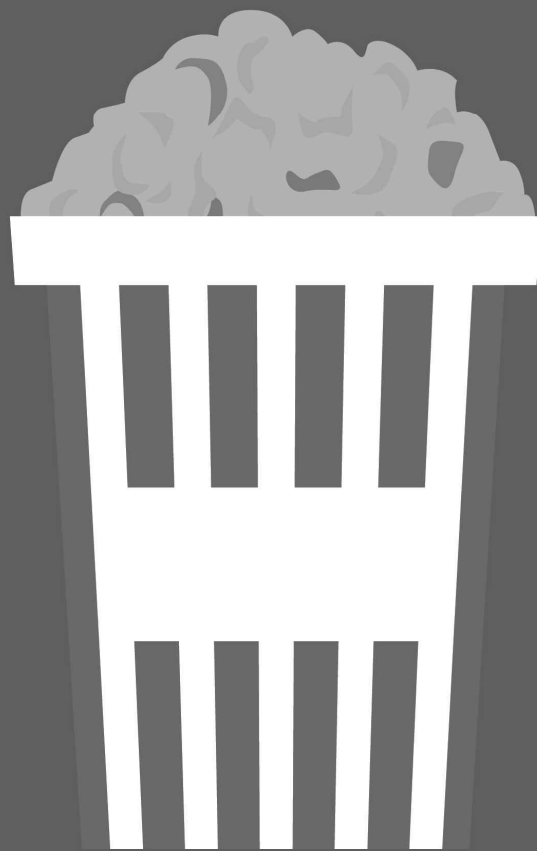
(본사 편집부)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ав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